

전남 “내년 수출구조 전환 분기점”…신흥시장 집중 공략

공산품 회복·농수산식품 10억 달러 달성 동시 추진 시장개척단 10회·판촉전 2회로 확대 등 19회 마케팅

전남도가 2026년 지역 수출 확대를 위해 해외마케팅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 미국·중국·일본에 편중된 기존 수출 구조를 벗어나 인도, 중국, 유럽 등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시장개척 활동을 확대해 공산품 수출 회복과 농수산식품 수출 10억달러 달성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전남 총수출액은 342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

비 11.1% 감소했다. 글로벌 경기둔화와 주력 품목 가격 하락의 영향이 커졌다. 반면 농수산물 수출액은 7억3000만달러를 기록하며 13.3% 증가했다. 김·김치·참조기 등 전남 대표 품목 중심의 성장세가 이어지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남도는 이러한 ‘공산품·문화·농수산식품 성장’의 구조적 흐름을 고려해 내년 해외마케팅 전략을 전면 개편했다. 무엇보다 최근 사업 실적 분석을 반영해 실효성이

높은 프로그램 중심으로 재편했다.

전남도의 올해 10월 기준 해외마케팅 추진실적을 보면 시장개척단 7회(8개 국가, 73개사)에서 MOU 2770만달러, 실제 수출 1170만달러의 성과가 나타났다. 해외 박람회 10회(10개국, 72개사)에서는 MOU 745만달러, 수출 66만달러가 이뤄졌고, 북미·H마트와 연계한 판촉전 1회에 20개 제품이 전시돼 34만달러의 실 판매 실적을 기록했다.

도는 “시장개척단 중심의 직접 상담과 유통망 기반 판촉전이 실제 수출로 이어지는 비중이 가장 높다”고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전남도는 내년 총 19개국 26개 지역에서 19회의 해외마케팅 사업을

추진한다.

약 200개 수출 중소기업과 준비기업이 대상이며, 수출유망도·시장성 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단순한 행정 지원이 아니라 ‘기업 수요와 실수출 가능성’을 기준으로 한 선별적 지원 원칙을 강조했다.

우선 시장개척단은 올해 8회에서 10회로 확대된다.

인도·중남미·아세안 등 성장성이 높은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현지 바이어와의 1대 1 상담, 수출 계약 체결 지원, 현장 피드백 수집 등 밀착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한류 연계 해외 박람회는 7회 추진한다.

K-푸드, K-뷰티, 라이프스타일 등 한류 소비재와 전남 중소기업 제품을 결합해 현지 홍보·상담·전시를 동시에 진행해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한다.

식품·화장품·생활재의 소비 반응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구조로, 농수산식품 10만달러 달성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판촉전도 2회로 늘린다. 전남도는 H마트 사례처럼 북미·유럽 대형 유통망과 연계한 판촉전이 ‘실판매·재구매·입점’으로 이어지는 효과가 크다고 보고 내년에는 지역별 맞춤형 판촉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지 한인축제·지역행사 등과 연계해 행사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전남도는 코트라(KOTRA), 한국무역협회 등 전문기관과 협력해 ‘진성 바이어’ 발굴 체계를 고도화한다. 지난달 파견 지역을 확장한 데 이어, 내년 3월부터 11월까지 중국·유럽·아세안 등에서 시장개척단·박람회·판촉전이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도 관계자는 “2026년은 전남 수출 구조를 전환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신흥 시장 중심의 전략적 해외마케팅으로 공산품·농수산식품의 동반 성장을 이끌고, 실질적 성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더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ews@gwangnam.co.kr

광주은행, 다문화 청년들과 봉사하며 소통

흑석·월곡동 환경정비…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도 참여

광주은행은 최근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와 함께 광주에 거주하는 내·외국인 40명(외국인 30명·내국인 10명)과 ‘지구촌친구 광주불린투어’ 자원봉사 활동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봉사에는 인도네시아·베트남·도미니카공화국·우즈베키스탄·인도·태국 등 총 11개국 출신 외국인 청년들이 참여했으며, 광주은행과 지원센터 직원들도

함께했다.

참가자들은 광산구 흑석동·월곡동 일대를 돌며 골목길, 하천 산책로, 버스정류장 주변의 쓰레기 to 수거하고 환경정비를 진행했다.

고훈 광주은행 외국인금융센터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히 환경을 정비하는 차원을 넘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자리였다”며 “다양

한 배경을 가진 청년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함께 참여한 점에 큰 의미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은행 외국인금융센터는 올해 2월 문을 연 광주·전남 최초의 외국인 전용 영업점이다.

한전과 송금뿐 아니라 수신·대출 등 다양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근무 여건을 고려해 일요일 영업도 운영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제15기 대학생 홍보대사 해단식 열려

광주은행, 지역 청년 30명 공감·소통 여정 마무리

광주은행은 최근 본점에서 ‘광주은행 제15기 대학생 홍보대사 해단식’을 열고, 6개월간 브랜드 이미지 향상과 ESG 사회 공헌 활동에 참여한 홍보대사들의 활동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했다.

올해 5월 초 선발된 15기 홍보대사는 광주·전남 지역 대학생 30명으로 ESG 사회 공헌 활동과 브랜드 홍보, 디지털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MZ 세대 특유의 감각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의 접점을 넓혀왔다. 홍보대사들은 고3 예비 사회초년생을 위한 대학 생활 팔 티 및 금융교육, 광주 2025 세계양궁선수권 대회 홍보 부스 운영, 광주전 풀로깅 봉사활동 등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36회의 활동을 진행했다.

해단식에서는 조별 프로젝트 하이라이트 영상 상영과 활동 소감 발표가 이뤄졌으며, 수료증 전달과 함께 우수팀·우수 홍보대사 시상도 진행됐다.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청년 참여형 프로젝트와 ESG 기반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해 지역과 상생하는 금융기관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15기의 공식 활동은 끝났지만, 대학생 홍보대사는 ‘광은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동반자다”며 “6개월간 쌓은 경험의 앞으론 큰 자산이 되길 바리며, 더 넓은 세상에서 자신만의 길을 힘차게 열어나가길 응원한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롯데마트, 연말 ‘통큰세일’

4~7일 땅기 등 최대 50%

롯데마트는 4일부터 7일까지 고객 선별에 보답하기 위해 연말 결산 프로모션 ‘통큰세일’을 진행한다.

롯데마트는 통큰세일 대표상품으로 올해 첫 반값 땅기기를 선보인다.

는산·완주·하동 등 전국 산지에서 수확한 설향 품종의 ‘통큰 땅기기(500g)’는 행사 카드 결제 시 5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1+등급 한우 등심(100g)’과 ‘1+등급 한우 국거리·불고기(각 100g)’는 저렴한 가격에 구매 가능하다.

이외에도 ‘트리밸리 파프리카(국산)’와 ‘괭이버섯(360g)’ 등 인기 농산물을 특가 라인업으로 선보인다.

대용량상품도 준비했다.

‘몸보신용 한우 사골·잡뼈등큰 대용량 기획팩 3종’은 엘포인트 회원에게 50% 할인한다. ‘통큰 국내산 돼지 등뼈(2kg·냉동)’는 할인가에 선보인다.

이 밖에도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두고 롯데마트는 흡파티 먹거리 사전 예약을 최초 운영한다.

송태영 기자 st123@gwangnam.co.kr



KT&G 전남제주본부는 최근 사랑의 온도탑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에 참여해 취약가정을 위한 ‘KT&G 상상나눔 온정(On-情)’ 기금 4000만원을 전달했다.

KT&G 전남제주본부, 연말 온정 나눔

사랑의 온도탑 4000만원 기탁…취약계층 지원활동도

KT&G 전남제주본부는 최근 사랑의 온도탑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에 참여해 취약가정을 위한 ‘KT&G 상상나눔 온정(On-情)’ 기금 4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기금은 난방비 부담 증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이 커진 취약가정의 대상으로 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KT&G 본사를 비롯해 영업기관, 제조공장이 함께 참여해 전국 곳곳에서 나눔활동, 월동용품 및 생계비 지원, 시설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정을 전할 예정이다.

송태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광주은행은 최근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와 함께 광주에 거주하는 내·외국인 40명과 ‘지구촌친구 광주볼런투어’ 자원봉사 활동을 진행했다.

